

첨단 장비 300억 투자...의료경쟁력 키운다

짧은 시간 정밀진단 특화 CT 가동
폐쇄 공포 줄인 MRI 도입 계획
분야별 우수 전문의 영입도 박차
해외병원 관계자들 벤치마킹 방문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과감한 의료장비 보강 투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진료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명지병원은 9월 들어 첨단 의료장비를 잇따라 도입했다. 연말까지 신규 장비 도입 및 기존 장비 보강과 교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명지병원이 이러한 첨단 장비 도입에 투자하는 규모는 300억 원에 달한다.

●환자 불편 최소화, 맞춤형 진료 구현

명지병원은 최근 영상의학과 CT실에서 이왕준 이사장, 홍성화 의료원장, 김진구 병원장 등 의료진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도입한 영상진단 의료장비 가동식을 가졌다.

명지병원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의료장비들은 환자들이 진료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증상별로 섬세한 시술과 정밀 진단이 가능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도입해 가동에 들어간 CT 장비의 경우 짧은 진단시간에도 정확한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기존 검사 때 오래 숨을 참기 어려운 응급환자나 어린이, 노인 등이 한결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술을 위한 절개부위를 최소화해 흉터를 줄이고 회복이 빠른 이점이 있는 로봇수술장비와 촬영 때 폐쇄공포를 느끼는 환자를 배려한 MRI 장비도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명지병원의 이 같은 대규모 의료장비 확충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명지병원이 9월 도입해 가동식을 가진 최신 듀얼 576 슬라이스 CT. 짧은 검사시간이 특징으로 오래 숨을 참기 어려운 응급환자나 어린이, 노인들을 배려한 장비다. 명지병원은 앞으로 연말까지 각종 첨단 의료장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많은 국내 병원들이 3년 가까이 정상은 영을 못해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진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영상의학과 임정기 교수는 “심장과 뇌 등 정밀한 판독에 특화된 CT를 도입해 기존 장비에 비해 선명하고 입체적인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심장센터의 본격적인 가동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장비 도입으로 심장이식수술을 비롯한 심장수술 등에서 선도적인 위치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료진 영입과 장비보강, 획기적 의료 질 향상”

명지병원은 의료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 확충과 더불어 각 진료 분야별로 국내서 명성 높은 전문의 영입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경기북서

부 최초로 심장이식수술에 성공한 김기봉 교수, 뇌혈관질환 개두술 전문가 정영섭 교수, 간 이식 수술 2000건 기록을 가진 이석구 교수, 어깨재활의 권위자 이강우 교수 등이 최근 명지병원이 진료 분야별로 영입한 전문의들이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우수의료진 영입과 대규모 의료장비 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들이 획기적인 의료질 향상으로 이어지며 경쟁병원들과 견주어 질적, 양적으로 모두 앞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지병원의 혁신적인 의료시스템 구축과 첨단장비 보강은 해외 병원의 벤치마킹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19일 남트대병원, 스트라스부르대병원, 툴루즈대병원 등 프랑스 21개 주요 병원 소속 병원장과 관계자 30여 명이 명지병

원을 방문했다. 대한병원협회 초청으로 한국의 주요 병원을 탐방하기 위해 방한한 이들은 첫 방문지로 명지병원을 선택했다.

명지병원은 이날 프랑스 병원계 대표 단에게 그동안 구축해온 혁신 의료시스템과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소개했다. 또한 이왕준 이사장을 비롯한 병원 운영진은 이들과 명지병원의 듀얼트랙 헬스케어시스템 등 감염병 대응 병원운영, 우수 의료인력 확보, 한국의 의료시스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 프랑스 병원 대표단은 명지병원의 자연친화적 검진센터인 숲마루, 반 개방형 정신과 병동 해마루, 국내 첫 코로나19 후유증 다학제 진료 클리닉, 코로나19 대응 격리응급병실인 예코병동 등의 주요시설도 돌아보았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 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양치질 중 잇몸 출혈...치주질환 가능성 제때 치료 하지 않으면 잇몸빠까지 염증

양치질 도중 거품이 빨갛게 변하는 경우가 있다. 칫솔질을 하다가 잇몸에 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양치질 도중 출혈이 지나치게 자주 발생한다면 치주질환 발병 가능성을 염두에 뒀야 한다.

치주질환 원인으로선 꼽힐지 않은 양치질 습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치주질환은 증상이 따라 치은염, 치주염으로 나뉜다. 치은염은 잇몸이 빨갛게 붓는 증상이다. 치은염 발병 초기에는 스케일링과 올바른 칫솔질로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치은염이 제때 치료되지 못할 경우 잇몸과 잇몸뼈까지 염증이 생기는 치주염으로 발전한다.

치주염이 발생한 상태라면 치과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시행한 뒤 치주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주치료의 시작은 스케일링이다. 다음 단계는 치근활택술 및 치주수술이다. 만약 염증이 치조골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치주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치아 신경관 안까지 확대된 경우라면 신경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치아와 잇몸 상태, 교합, 흡연 여부, 치아가 흔들리는 정도, 기타 전신 질환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담당 치과 의사와 1대1 상담을 진행한 뒤 치주치료를 결정해야 한다. 모든 치주치료가 끝난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해 치태, 치석을 제거해 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아차산치과 구의고윤미치과 조주훈 원장

미국 뉴스위크 ‘임상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서울아산병원 내분비 등 5개 분야 톱10 올라

서울아산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2023 임상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전체 11개 임상분야 중 5개 분야가 세계 10위 안에 들었다. 서울아산병원은 내분비 분야 세계 3위를 비롯해 비뇨기 4위, 소화기 6위, 암 7위, 신경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 10위권에 든 5개 분야 외에도 정형 12위, 호흡기 26위, 심장 39위, 심장수술 54위, 소아 60위를 기록했다. 국내 1위 분야도 내분비, 비뇨기, 소화기, 신경, 호흡기, 심장, 심장수술 등 7개에 달했다.

자생한방병원 “이명진료비 9년새 2배 경중”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민태은 한의사 연구팀이 국내 이명 환자의 특성과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약 7억4000만 명의 성인이 겪고 있는 이명은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소리를 인식하는 증상을 말한다. 국내 이명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1.4배 많았다. 연령대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62.23%에 달했다. 총 치료비는 조사기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사이에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의 날씨 22일(목)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15 24		16 23		12 24
강릉	0/0	대전	0/20	전주	0/20
	13 25		13 25		14 25
광주	0/20	대구	10/30	부산	20/30
	15 26		13 25		18 26
창원	20/30	제주	20/3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5 26		20 26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고대의료원·현대차 정몽구 재단, 마다가스카르 의료진 초청 연수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영훈)은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 마다가스카르 의료진을 초청하고 연수를 통해 현지 눈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고려대의료원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그동안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2020년 라오스를 시작으로 올해는 마다가스카르 온드림 실명예방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5월 마다가스카르 현지 조사를 마쳤으며 최근 마다가스카르 아제라 국립대학병원의 요청을 받아 안과 의사 연

수를 시행했다.

마다가스카르는 전체 안과 의사가 30여 명이며 이중 공공분야에서 활동하는 안과 의사는 12명에 불과하다. 이번 연수는 현지에서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의사 중 추천을 통해 선발했다. 초청 연수는 마다가스카르의 아제라 국립병원 안과 라밀리손과 아노시알라 대학병원 안과의 라바카 등 두 명의 의사가 참가했다. 두 사람은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19일 간 고려대 구로병원과 부평 한길안과병원에서 연수를 마쳤다. 한국에서 초음파 수정제 유

화술과 같은 선진 백내장 수술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귀국해 마다가스카르 안보건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고려대의료원은 이번 의료진 초청연수를 비롯해 마다가스카르인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계속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박건우 고려대 의료원 사회공헌사업단장은 “앞으로 마다가스카르 보건의료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18일 고대구로병원에서 진행된 수료식에서 박건우 고려대의료원 사회공헌사업본부장(왼쪽)과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라밀리손 의사가 수료증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9월 22일(목) 음력: 8월 27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사람이 위험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경계망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다. 황재수가 있다.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지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르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대 온다. 거래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고 괜찮다.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는 업무가 좋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끈게 가지면 이롭다. 여성의 경우 남자 조심하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쇠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함부로 인간됨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일가견을 이루기 위한 출사이다. 움직여라.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었다. 서두르면 낭패 본다. 기다려라.	협력해 주는 사람을 기대할 수 없고, 홀로 자기 길을 가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겠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었다. 서두르면 낭패 본다. 기다려라.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대 이상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 기본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부동산의 압류, 강제매각 등을 당할 수 있다.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보던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학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경쟁이 심할 때이므로 일각이라도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오히려 일단 커지게 된다.						